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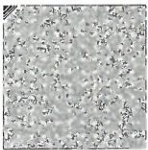
시울 주보

제238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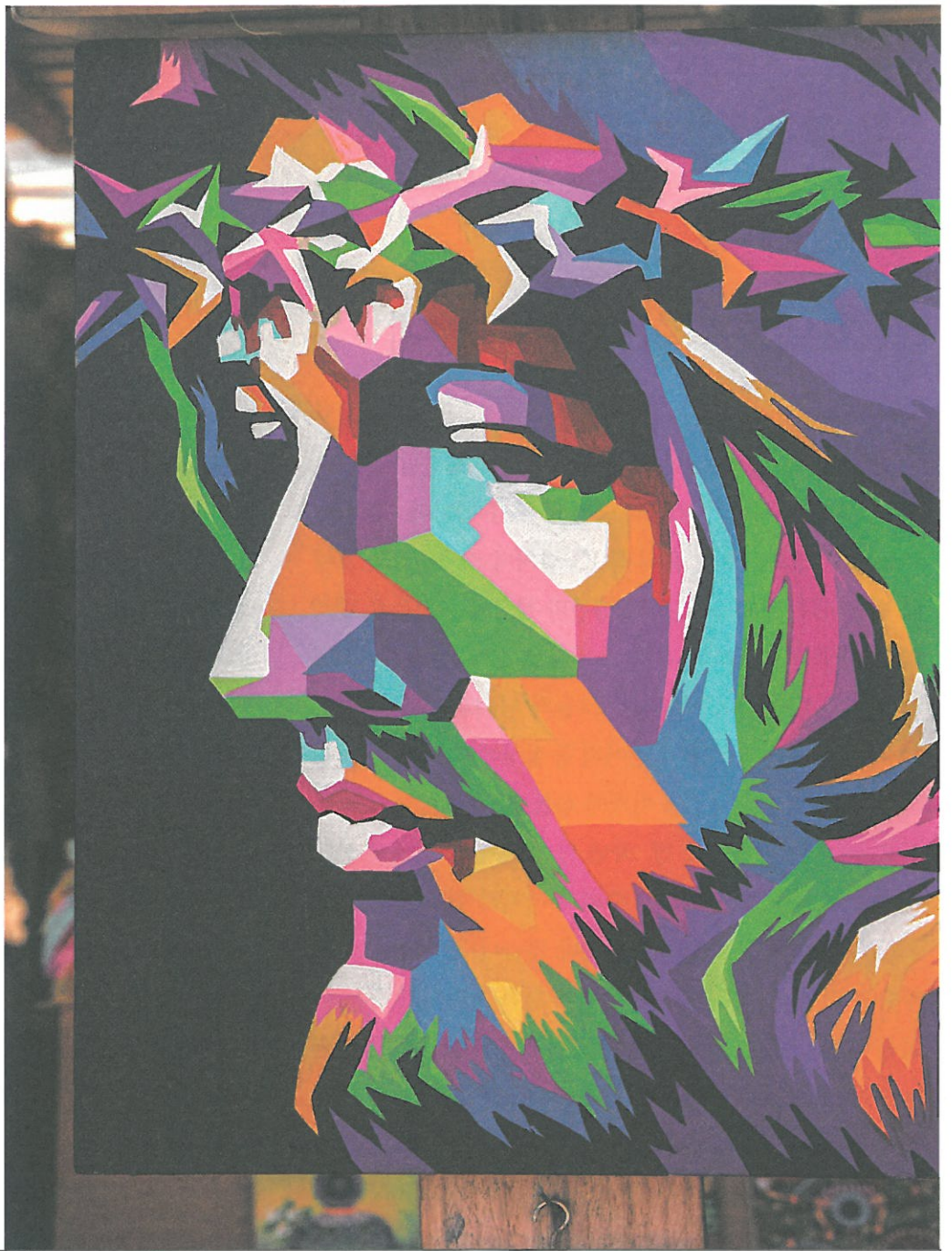
2022년 3월 20일(다혜)

사순 제3주일

발행  천주교 서울대교구
발행인 정순택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입당송 | 시편 25(24),15-16

제 발을 그물에서 빼내 주시리니, 제 눈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저를 돌아보시어 자비를 베푸소서. 외롭고 가련한 몸이옵니다.

제1독서 | 탈출 3,1-8ㄱ.13-15

화답송 | 시편 103(102),1-2.3-4.6-7.8과 11(◎ 8ㄱ)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

○ 네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네 모든 아픔을 없애시는 분. 네 목숨을 구렁에서 구해 내시고, 자애와 자비의 관을 씌우시는 분. ◎

○ 주님은 정의를 펼치시고, 억눌린 이 모두에게 공정을 베푸시네. 당신의 길을 모세에게, 당신의 업적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

셨네. ◎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는 넘치시네. 하늘이 땅 위에 드높은 것처럼, 당신을 경외하는 이에게 자애가 넘치시네. ◎

제2독서 | 1코린 10,1-6.10-12

복음환호송 | 마태 4,17 참조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

복음 | 루카 13,1-9

영성체송 | 시편 84(83),4-5 참조

주님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호의호식합니다, 덕분에

김한수 토마스 신부 | 종로성당 주임

한국 영화 <기생충>이 각종 영화제에서 호명됩니다. 우와... 유엔 회의장이 BTS의 공연 무대가 됩니다. 우와... 어느 순간 영화, 음악, 음식 등 K-컬처가 지구인들의 호평을 받습니다. 우와... 문화적 생산과 성장에는 한눈을 팔지 않고 평생을 반듯하게 문화 소비자로 살아온 입장이지만 괜한 자부심이 피어오릅니다. 그들의 남다른 예술적 감각이 자신의 민족적 성향과 언어적 동질성에도 녹아 있는 것처럼 우쭐합니다. 덕분에 어깨에 힘들어 갑니다.

2146. 이천백사십육 명. 작년 한 해 동안 일터에서 산업 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 수의 추정치라 합니다. 생계를 위해 일하다 죽는 이들이 그렇게나 많습니다. 지인을 통해 부음을 전해 듣기도 하지만, 주변에 일하다 다치고 죽는 이들을 직접 마주 대할 일이 흔치 않기에 그러한 죽음은 비현실적인 숫자로만 다가옵니다. 새벽 시간 문 앞에 놓인 택배 상자에(덕분에) 심란해집니다.

기생충을 다시 호출합니다. 영화 기생충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회충약으로 상대해야 하는 그 존재의 삶을 불러냅니다. 상상력을 발휘해 봅시다. 자기반성의 이성적 능력을 갖춘 기생충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이성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에 숙주를 향한 무한 감사와 애정이 솟아납니다. 나는 당신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기생, 寄生). 숙주의 노고 덕분에 불로소득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만수무강하세요. 당신 없으면 나도 없습니다.

나도 자기반성을 해 봅니다. 맑은 정신으로 이 쾌적한 생활을 떠올려 봅니다. 당연히 무한 감사와 애정이 솟아납니다. '덕분에'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寄生).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시대에도 방역과 의료에 애쓰는 이들 덕분에 건강히 지냅니다. 물건이든 음식이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신속 배달해 주시는 분들의 수고 덕분에 여전히 모자람 없이 살아갑니다. 다른 이들의 수고와 온갖 좋은 것이 가득한 세상에 기대어 살아가는 존재의 숙명을 그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덕분에 살아가지요. 여러분도 여러분 덕분에 살아가지요? 누군가의 노고와 희생에 기대어 우리는 살아갑니다(寄生). 우리들 서로는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갑니다(공생, 共生). 우리 모두 덕분에 살아갑니다. 혼자 잘난 척 살아갈 수 있습니다만 혼자서는 못 삽니다. 잘난 척 혼자 살아가기보다는 덕분이라는 마음을 잃지 않으려 합니다. 덕분이라는 마음이 서로에게 확장되는 인식의 변화를 살고자 합니다. 그러한 변화를 모색하는 때가 사순 시기입니다. 생각의 변화 혹은 패러다임의 전환이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권고하시는 회개입니다. 생각의 틀, 일상의 태도, 사람을 대하는 마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처럼..."(루카 13:3)이라는 예수님 권고에 멈칫하게 되는 사순 제3주일입니다. 다시 새롭게 기도, 자선, 단식을 통한 회개의 여정, 변화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정녕 나는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탈출 3,7)

섬마을 시장에서 만난 예수님입니다. 유서 깊은 성당도, 유명한 작가의 작품도 아닙니다. 이렇게 화려한 예수님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이 애처롭습니다. 인간의 온갖 아픔과 수많은 죄들이 총천연색의 조각이 되어 담긴 듯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렇게 많은 이들의 아픔을 당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자 그분께서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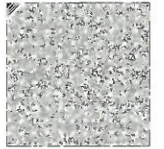
장은미 베르나디아 | 가톨릭사진가회



희망적으로



홍찬미 글로리아 | 싱어송라이터



“혹시 잃고 싶지 않은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지난겨울에 있었던 한 공연에서 관객으로부터 받은 질문입니다. 질문을 받자마자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희망’. 그날 저의 대답은 짝박혔지만, 질문이 남긴 여운은 길었습니다. 한동안 계속 생각이 나더군요.
 믿을 수 없는 걸 믿고 있어 / 바랄 수 없는 걸 바라면서
 견딜 수 없는 날 견뎌 / 온전한 아침을 꿈꿔

‘바람’이라는 노래의 후렴 가사입니다. 이 곡을 처음 쓸 당시의 저는 건반 앞에 앉으면 무엇을 노래해야 할지 몰라 오랫동안 무기력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불쑥 튀어나올까 봐 가사를 쓰는 일이 두려웠고 세상엔 이미 좋은 노래가 많은데 굳이 나 따위가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못난 생각도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도 노래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서 사라지지 않아 다른 무엇보다도 그걸 배겨 내는 게 힘들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나서 그 마음에 이름을 붙이고 오랫동안 들여다보며 썼던 노래가 ‘바람’입니다.

지금 보니 ‘바람’의 노랫말은 ‘희망’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희망’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완전히 도래하지 않은 시간, 전부 주어지지 않는 무언가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뤄지지 못할지도 모르는 꿈을 가슴에 품는 것입니다. ‘바람’에는 두 번째 후렴이 있는데, 첫 번째 후렴과 비슷한 듯 다른 두 번째 후렴에서는 똑똑 끊어져 있던 구절들이 하나의 문장으로 이어져서 믿고, 바라고, 견디고, 꿈꾸는 일이 사뭇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희망적으로.

믿을 수 없는 걸 믿고 싶어 / 바랄 수 없는 걸 바라면서
 견딜 수 없는 날 견뎌 / 온전한 그대를 꿈꿔

우리는 지금 사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되는 시기이고, 그와 함께 희망도 자라나는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지요. “그러나 나는 되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래아로 갈 것이다.”(마태 26,32) 예수님의 죽음을 겪고 난 뒤에 이 말씀을 기억해 내고 갈릴래아로 되돌아가는 제자들을 상상해 봅니다. 더러는 믿을 수 없었을 겁니다. 더러는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자신을 혐오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져 허우적대기도 했을 것이고, 또 더러는 버리지도 못하는 꿈 때문에 아파하며 애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워했을지도 모르지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남겨진 끝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시려고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던 걸까요? 저마다 사로잡혀 있는 가장 깊은 절망을 다시 거슬러 올라갈 힘, 당신께서 먼저 걸으셨을 그 길, 잃고 싶지 않은 것 한 가지를 우리에게 영원히 주시려고, 사순 시기가 우리를 채근합니다. 희망으로 가까이 초대합니다. 부드러운 바람에 이끌려 이제 그만 절망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한컷 묵상



류상에 아녜스 수녀
살트르성바로수녀회 대구관구



가톨릭 신자들을 위한 가톨릭 신학 10

하느님은 정말 계신가요?

조한규 베네딕토 신부 | 가톨릭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위대한 침묵’(2005)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이 영화는 프랑스 남동부 샤르트뢰즈 산맥에 있는 ‘그랑 드 샤르트뢰즈 수도원’을 배경으로 합니다. 오랫동안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는 수도원에 감독 혼자 6개월간 머물며 직접 찍은 영화입니다. 영화는 꽤 길고, 대사가 거의 없으며, 소리는 성가와 기도뿐입니다. 이 영화는 침묵의 의미와 크기를 보여줌으로써 하느님에 대해 성찰하게 해줍니다. 크게 떠들어야 잘 들리고, 자기를 드러내야 잘 보인다고 생각하는 오늘날 새로운 시선을 제공해 줍니다. 그들이 수도원에 머무는 이유는 예수님 제자로 온전히 살기 위함이고, 그래서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오직 고독과 침묵과 관상(觀想)에 머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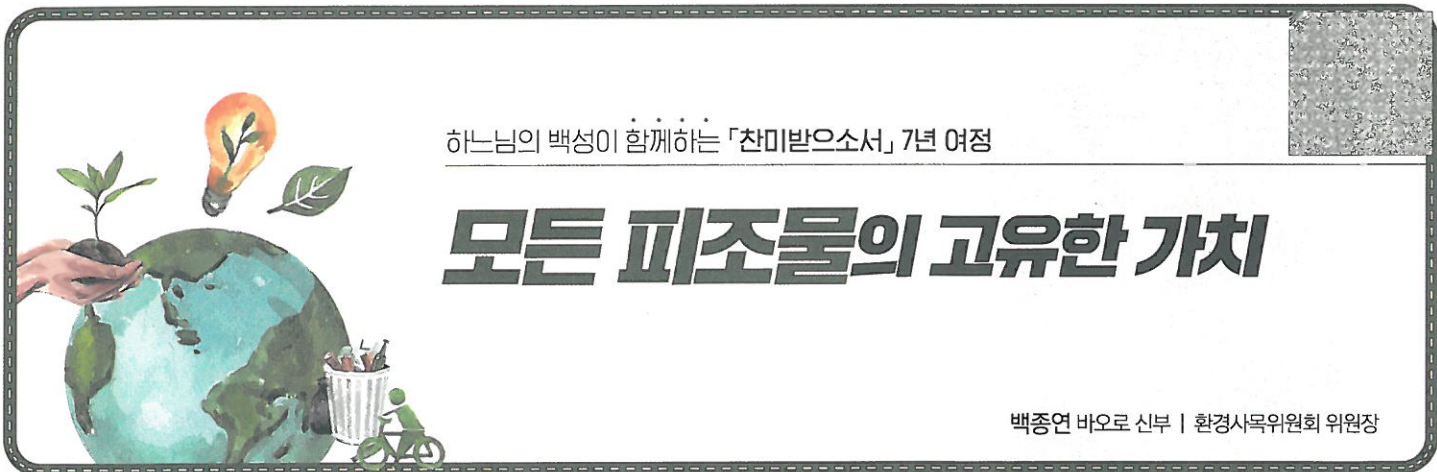
하느님은 계신가요? 어디 계신가요? 만일 계신다면 어떻게 만날 수 있나요? 하느님의 존재를 그리스도인들은 믿고 있지만, 왜 그리고 어떻게 그런지에 대한 설명은 쉽지 않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대표 저서인 『형이상학』의 시작에서 ‘모든 인간은 본래 알고자 한다.’라고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마음 안에 당신을 찾고 발견하고자 하는 열망을 심어주셨습니다. 인간이 하느님을 찾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인간은 본래 진리와 행복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이고, 이런 모든 노력의 끝에 하느님을 발견하고 인간의 본질을 찾습니다. 진리를 찾는 사람은 자신이 의식하든 못하든 이미 하느님을 찾는 것이라고 에디트 슈타인 성녀는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은 계시는가? 예, 하느님은 분명 계십니다! 물론 인간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없습니다. 본래 하느님

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나 눈으로 볼 수 있거나, 혹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움직인다면, 그분은 하느님이 아닙니다. 하느님을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다면, 원할 때 눈앞에 드러낼 수 있다면 그분은 하느님이 아닙니다. 바람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것처럼, 하느님은 인간의 머리로 알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영적이고 이성적 능력을 통해 하느님에 대해 일부 알 수 있지만, 이는 극히 일부분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영화 ‘위대한 침묵’에서는 고독과 고요와 관상 속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사람들을 그저 조용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영화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는지 묻지도 않고 설명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들 역시 자기 선택의 이유에 대한 특별한 답을 누군가에게 요구하지 않고, 스스로 제시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느님 현존 앞에 조용히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가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묵었다.”(요한 1,39) 그들은, 그리고 이전에 하느님을 만났던 많은 성인 성녀들은 하느님께서 존재하심을 알고, 그분 현존 앞에 머물고자 노력했습니다. 하느님의 존재와 현존은 완전한 침묵 속에서만 들을 수 있고, 눈을 감아야만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선성과 지혜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고 당신 뜻의 신비를 기꺼이 알려주시려 하셨으며, 이로써 사람들이 사람이 되신 말씀, 곧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성부께 다가가고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도록 하셨다.”(『계시현장』 2항)



하느님의 백성이 함께하는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모든 피조물의 고유한 가치

백종연 바오로 신부 | 환경사목위원회 위원장

창조 이야기에서 하느님께서 많은 피조물을 창조하신 후 그들에게 번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구 위에서 번성하기 위해 필요한 양식을 마련해 주신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이 피조물들을 잘 돌보라고 맡기십니다. (창세 1,1-2,15)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다른 피조물을 약탈할 지배권도, 절대적인 소유권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을 돌보며 그들과 함께 이 땅에서 번성하도록 하느님께 축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산업화 문명을 발전시켜온 인류는 다른 피조물들이 가진 고유한 가치를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는 경향을 키워왔습니다. 재화의 증식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피조물을 약탈해 왔습니다. 마치 다른 피조물들은 그 자체로는 존재할 가치가 없고, 인간을 위해 쓰일 때만 가치가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회칙 「찬미받으소서」(이하 회칙)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인간이 하느님의 모습을 닮았다고 내세우면서 모든 피조물이 각기 기능이 있고 그 어느 것도 필요 없지 않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질세계 전체는 하느님의 사랑, 곧 우리에게 대한 무한한 자애를 나타냅니다.”(84항)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회칙 69항에서 현대의 왜곡된 인간 중심주의를 강하게 비판하며 『가톨릭교회교리서』를 인용합니다. “피조물은 저마다 고유한 선과 완전을 지니고 있습니다. … 저마다 고유한 존재를 지

니기를 하느님께서 바라신 다양한 피조물들은, 저마다 고유한 방법으로 하느님의 무한한 지혜와 선의 빛을 반영합니다.”(339항) 이렇게 교리서는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피조물에 관해 설명하며, “동물은 단순히 생존함으로써도 하느님을 찬미하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린다.”(2416항)는 말로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조된 피조물들을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는 없습니다.

참으로 하느님께서 피조물들이 당신을 반영하도록 창조하셨으며 자연 전체에 현존하십니다. (회칙 87-88항) 그래서, 프란치스코 성인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당신의 무한한 아름다움과 선함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 주는 놀라운 책으로 자연을 받아들여도록 권유”(12항) 하였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과 성인의 권유, 교리와 교황님의 강조를 통해,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느님을 반영하고 있음을 다시 깨닫는 우리는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주님께 찬미를 드리고 피조물과 함께 주님을 흠송하려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87항)

2022년, 전 교회 공동체가 함께하는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은 피조물에 관한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을 따르시급히 걸어야 할 중요한 여정입니다. 이 가르침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는 우리는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만 생태계 파괴를 막아야 하는 것이 아님을, 고유한 가치를 지닌 다른 피조물들도 인류와 함께 이 땅에 번성할 권리가 있음을 계속 의식하면서 이 여정에 함께 해야 하겠습니다.

영화 '히든 피겨스'

편견, 누군가 먼저 깨뜨려야

이대현 요나 | 국민대 겸임교수, 영화평론가

성도 얼마든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신념과 실천이 그녀에게는 있었습니다.

연구소 책임자인 백인 알 해리슨(케빈 코스트너 분)도 그때까지도 당연하게 여기던, 사소한 것 같지만 아주 상징적인 차별의 벽 하나를 부숩니다. 초를 다투는 급한 상황에도 “먼 아프리카(다른 건물)에 있는 유색인종 화장실을 가야 한다.”는 캐서린 존슨의 항의에 망치로 화장실 간판을 모두 떼어냅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사(NASA)에는 유색인종 화장실도, 백인 화장실도 없다. 변기 있는 화장실만 있다. 이곳 모든 사람의 오줌 색깔은 똑같아.”라고 선언합니다.

〈히든 피겨스〉는 재능에는 인종의 구분이 없고, 강인함에는 남녀가 없으며, 용기에는 나이가 없다고 말한다. 비난과 멸시를 이겨내고, 편견과 불합리를 깨는 ‘최초’가 있어야 편견과 차별이 없어지고, 아폴로 11호를 달에 쏘아 올릴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과 문명이 열립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낡은 편견이 깨지기가 무섭게 새로운 편견이 찾아옵니다. 때론 무지해서, 때론 이기심으로, 때론 편해서 우리는 그 안경을 씩니다. 그것이 눈과 마음을 흐리게 해 차별을 평등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집단 이기주의와 갈등을 낳습니다. 과감히 벗겨내거나, 벗어버려야 합니다. 캐서린 존슨이나 알 해리슨처럼.

예수님께서 일찍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몸소 실천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셨습니다.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으러 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실 물을 줘 다오.’ 하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요한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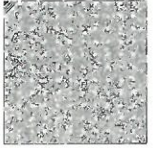
편견은 ‘무지의 자식’입니다.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맹목적

믿음, 혹은 고정관념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고집이 세고 끈질깁니다. 아무리 대문으로 쫓아내도 어느새 창문으로 되돌아오곤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는 ‘편견이란 어리석음의 으뜸’이라고 했습니다.

독설로 유명한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가 로맹의 작품이라면 무척대고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데생 하나를 보여주면서 ‘로맹의 최근 작품’이라고 말해줍니다. 아니나 다를까 혹평이 쏟아집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허! 작품을 잘못 내놓았군. 로맹의 것이 아니라, 미켈란젤로의 작품일세.”

편견은 그 자체로 차별입니다. 비뚤어진 눈, 기울어진 마음으로 세상과 인간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눈과 마음을 가지고 편견을 의심 없이,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면 새로운 세상은 열리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최초’가 되어 그것을 깨야 합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히든 피겨스〉(원제: Hidden Figures)에서 캐서린 존슨(타라지 헨슨 분)은 그렇게 합니다. 미국과 소련의 우주 전쟁이 한창이던 1960년대 초, 그녀는 ‘백인, 남성’들의 냉대와 무시 속에서 ‘흑인, 여성’ 최초로 미 항공우주국(NASA)의 비행연구소 전산원을 거쳐 정식 연구원이 됩니다. 그냥 운이 좋아서 유색인종과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우주선의 발사와 대기권 재진입에 필요한 수치를 계산해 내는 천재적인 수학 실력, 흑인 여



성막, 함께 움직이는 하느님의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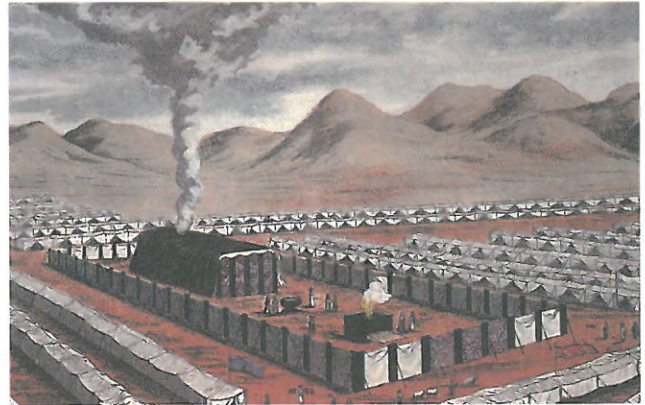
김광현 안드레아 | 서울대 건축학과 명예교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나의 어좌요 땅이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에게 지어 바칠 수 있는 집이 어디 있느냐?’”(이사 66,1) 이런 하느님께서 광야를 지나는 당신의 백성들을 붙잡히 여기시고 그들과 함께하시려고 당신이 머무시는 성막(聖幕)을 지으라 하십니다. 이렇게 성막은 하느님께서 계획하고 지으신 집이지, 하느님이 그 안에 계시도록 사람이 지어 바친 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성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하시며 당신이 머물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탈출 25-31장) 지시하신 순서는 오늘날 건축물을 설계하는 순서와도 대략 일치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현존을 나타내는 계약 궤, 제사상, 등잔대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막을 짓는 재료와 크기, 색깔, 연결하는 방법을 일러주십니다. 내부 공간에 쓸 목제품과 휘장, 제단, 외부 공간인 성막 뜰, 조명 설비인 등불 등도 말씀하십니다. 또한 시공자인 성막 제조 기술자도 정해주셨습니다.

특히 탈출기 26장은 성막을 어떻게 지을지를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수치가 계속 나와 평면도를 머릿속에 그리지 않고는 어디를 말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부분이 말하는 요점은 성막에 쓰일 천과 나무의 폭과 너비를 반복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이동할 때 해체하여 일정하게 포개서 운반할 뿐만 아니라, 장소를 옮겨 다른 곳에도 같은 방법으로 세울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니다. 이에 기물들도 어깨에 메고 다닐 수 있게 고리와 채를 두게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성막은 이동용 성전이었습니다. 백성이 움직이면 하느님의 집인 성막도 움직이고, 백성이 멈추면



백성과 함께 움직인 성막

성막도 멈추었습니다. 멈춘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의 성막을 한가운데 두고 서로 마주 보며 살았습니다. 성막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습니다. 성막 안은 사제가 들어가는 성소, 대사제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로 나뉩니다. 오늘날의 성당은 이와 같은 성막의 공간 구성을 따르고 있습니다.

성막은 영어로 ‘태버나클(tabernacle)’입니다. 성체를 모시는 감실과 영어 표현이 같습니다. 이는 히브리 말로 미쉬칸(mishkan, מִשְׁכָּן)이라 하는데, ‘거주하는 곳(dwelling place)’이라는 뜻입니다. 거주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집 짓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곳이나 계셔서 어떤 장소에도 얽매이지 않는 하느님께서 사람과 함께하시려고 사람이 사는 것과 같은 집을 지으셨습니다. 그만큼 집이란 사람에게 더할 나위 없는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미사를 드리고 기도하는 성당도 이와 같습니다. **‘하느님의 집’인 성당은 하느님께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지나는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하시려고 지으시는 집, “내가 그들 가운데에 머물겠다.”(탈출 25,8)라며 인간의 삶 속에 깊이 들어오시려고 지으시는 집입니다.**

2022년 봄

천주교 서울대교구 문화학교

3월 20일부터 인터넷 접수 : culture.catholic.or.kr

인문학 신앙, 인문학을 만나다

때: 4월 21일 ~ 6월 23일 | 매주 목요일 19:30~21:00
곳: 영성센터 A103호 ※ 전 강좌 수강 시 수강료 8만원



01 정석 교수 **도시공학**

행복한 도시, 우리 손으로
때: 4/21, 4/28, 5/12 (3회)
수강료: 3만원

02 최광희 신부 **성경**

요한복음 신앙의 인물들
때: 5/19, 5/26, 6/2 (3회)
수강료: 3만원

03 임주빈 PD **음악**

문학작품으로부터 탄생한 음악들
때: 6/9, 6/16, 6/23 (3회)
수강료: 3만원

영성

01 '청년' Hello 기도

내용: 다양한 주제로 기도하면서
기도를 배우는 월피정
때: 매월 첫째 주 화요일 19:30~21:00
곳: 명동성당 문화관 소성당 / 경당
수강료: 무료

02 가슴쿵닥 교회사

내용: 김대건, 최양업 신부님을 만나는
김홍주 신부의 한국 교회사
때: 5/24 ~ 6/14 (4회)
매주 화요일 19:30~21:00
곳: 영성센터 A303호 수강료: 5만원

03 주님께 다가가는 글쓰기

내용: 함께 성장하는 신앙과 글쓰기
때: 5/19 ~ 6/23 (6회)
매주 목요일 19:30~21:00
곳: 영성센터 A304호
수강료: 8만원

문화

01 프로크리에이트 드로잉 - 기초반 **온라인**

내용: 아이패드 프로크리에이트로 배우는 가톨릭 드로잉
때: 4/26 ~ 5/17 (4회) | 매주 화요일 20:00~21:00
수업방식: 유튜브 및 카카오톡 피드백 수강료: 5만원

02 프로크리에이트 드로잉 - 기초반 **오프라인**

내용: 아이패드 프로크리에이트로 배우는 가톨릭 드로잉
때: 5/24 ~ 6/14 (4회) | 매주 화요일 19:00~21:00
곳: 영성센터 A304호 수강료: 6만원

03 캘리그래피 성경 쓰기

내용: 붓펜을 이용한 내 마음 속 성경 구절 손글씨 쓰기
때: 4/26 ~ 5/17 (4회) | 매주 화요일 19:00~21:00
곳: 영성센터 A304호 수강료: 5만원

04 칼림바로 연주하는 성가

내용: 칼림바의 맑고 은은한 소리로 성가 연주하기
때: 4/26 ~ 5/17 (4회) | 매주 화요일 19:30~21:00
곳: 영성센터 A302호 수강료: 5만원

05 스테인드 글라스 - 유리 모자이크

내용: 스테인드 글라스 유리조각으로 컵 촛대 만들기
때: 4/21, 4/28 (2회) | 매주 목요일 19:00~21:00
곳: 영성센터 A302호 수강료: 5만원 (재료비 포함)

06 스테인드 글라스 - 케임기법

내용: 정통 스테인드 글라스 제작 기법 체험
때: 5/12 ~ 5/26 (3회) | 매주 목요일 19:00~21:00
곳: 영성센터 A302호 수강료: 9만원 (재료비 포함)

07 망고실과 한지로 표현하는 성경 속 이야기 **원데이**

때: 5/14 (토) 14:00~16:30
곳: 영성센터 A302호
수강료: 5만원 (재료비 포함)

08 아크릴 물감으로 표현하는 이콘 그리기 **원데이**

때: 5/21 (토) 14:00~16:30
곳: 영성센터 A302호
수강료: 5만원 (재료비 포함)

※ 대면 수업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안중근(토마스) 의사 추모 미사


안중근(토마스) 의사는 1905년 을사늑약 후 거세지는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탈을 저지하고 조국의 독립과 동양의 평화를 구축하고자, '대한의군 참모총장 겸 독립특파대장 안중근'이라는 군인 신분으로 1909년 하얼빈에서 의거를 실행하신 분입니다. 안 의사의 평소의 깊은 신앙과 의거 후 1910년 3월 26일 뤼순 감옥에서 순국하시는 날까지 보여주신 의연한 신앙인의 모습은 참 평화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신앙인의 귀감이 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평화의 사도'가 되라는 가르침을 줍니다.

때, 곳: 3월 26일(토) 오전 10시, 주교좌 명동대성당
 집전: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제5대 대전교구장에 김종수 아우구스티노 주교 임명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대전교구장 서리 김종수 아우구스티노 주교를 대전교구장(Bishop of Daejeon)으로 임명하셨습니다.



서울대교구 어플리케이션 '가톨릭서울' 안내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목국은 본당 커뮤니티 활성화와 개인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 본당단위로 운영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가톨릭서울'을 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가입 방법과 이용 방법은 유튜브에서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목국' 채널을 검색해주세요.) 많은 관심과 이용 바랍니다.

다운로드 방법: ① 플레이 스토어 또는 앱 스토어 검색창에 '가톨릭서울'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묘원 한식 성묘 안내

1) 용인추모공원 한식성묘 안내 / 미사: 4월 6일(수) 오전 10시
 참례를 원하시는 분은 장묘관리팀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에서 출발하는 차량은 미리 전화 예약(02)727-2225 후 송금하셔야 자리 배정이 가능합니다.

오전 9시	명동 출발	10분 전 승차 요망(교구청 앞)
오전 10시	미사 예정	용인묘원 경당(김수환추기경 기념 경당) 명동 출발 차량 도착 시간에 따라 변동 가능
오후 2시	용인 출발	10분 전 승차 요망

성묘객 중 자가용 이용자 명동대성당 주차 불가
승차권 예매: 3월 14일(월)부터 선착순 자리 배정(1매 2만 원-좌석 띄어 앉기로 인한 조기 마감 및 차량비 변동 가능) / 마스크 미착용 시 차량 탑승 및 경당 출입이 제한됩니다. 미사 참례 인원은 코로나19 방역 조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예정입니다.
계좌번호: 우리은행 454-003267-13-159 (재)천주교서울대교구
 문의: 02)727-2225 장묘관리팀

2) 천주교 비봉추모관 한식 성묘 안내

미사: 4월 6일(수) 오전 11시, 비봉추모관 명례방
 참례를 원하시는 분은 비봉추모관 관리사무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및 도림동성당에서 출발하는 차량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마스크 미착용 시 미사 참례, 봉안당 출입이 제한됩니다. 미사 참례 인원은 코로나19 방역 조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예정입니다.
 미사관련 문의: 031)355-0191 비봉추모관 관리사무소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2004년 3월 21일 김창수 마르티노 신부(48세)
- 2011년 3월 23일 박인선 도미니코 신부(59세)
- 2017년 3월 21일 김영일 발타사르 신부(88세)
- 2021년 3월 24일 김병도 프란치스코 몬시뇰(87세)

교구청알림

서울대교구 소방관 가족 온라인 기도모임 안내

접수기간: 3월14일(월)~25일(금)
 지도: 강혁준 신부
 문의: 02)727-2078 직장사목팀

서울대교구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대상: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회비없음)
 때, 곳: 4월7일(목) 14시~15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집전: 송영호 국장신부, 김윤상 차장신부(해외선교봉사국)
 문의: 02)727-2407, 2409

갤러리1898 전시안내 / 문의: 02)727-2336

김은희 개인전: 1전시실
 이유선 개인전: 2전시실
 갤러리1898 '성미술 청년작가 공모전' 선정 작가
 정은정 캘리그래피전: 3전시실
 전시일정: 3월23일(수)~29일(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내마음의 복된 본당 갖기 미사)

때, 곳: 1310차 미사 3월22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 주 기억할 본당: 평양교구 강서 본당, 기림리 본당 / 문의: 02)727-2420
 유튜브로 실시간 미사 시청 가능: 매주(화) 19시(유튜브 앱 실행 → '명동대성당' 미사 검색)

가톨릭스카우트 대원 및 지도자 모집


한국스카우트·걸스카우트 가톨릭연맹 서울지구연합회
 대원: 서울대교구 본당 주일학교 학생(6~18세)
 지도자: 서울대교구에 교적을 둔 성인
 문의: 02)762-9857 (화~토) 8시~17시
 (부제 시 이메일 문의: seoulscout@catholic.or.kr)

새 삶을 향한 참생명학교 기초과정 4기


대상: 생명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
 때: 4월11일~5월30일 매주(월) 오후 7시30분(총 8주 강의)
 강의방식: ZOOM을 통한 온라인 비대면 강의
 회비: 5만 원(교재 포함, 교구장님 명의 수료증 발급)
 모집인원: 30명(선착순 마감)
 신청 및 문의: 02)727-2351 생명위원회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1) 2022년 상반기 영성심리아카데미 프로그램 안내
 교육명: 영성심리특강, 기도동반, 영성심리집단 상담, 영성심리독서모임, 피정 등(온라인 수업)
 신청: 홈페이지(<http://seoultpc.catholic.or.kr>) - 교육신청
 문의: 02)727-2126(tpc@seoul.catholic.kr)
 2)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진로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명동), 노동사목회관(보문역), 노원성당, 삼성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문의(예약): 02)727-2139(월~금 10시~18시), 전화상담: 02)727-2137(월~금 10시~17시)



서울주보 인스타그램
 @seoul_jubo



서울주보 인스타그램 QR

인준단체 알림

모임

비대면 생활 피정 / 문의: 010-3173-2665
 접수: 다음카페 '돌깨생활피정' / 최영민 신부(예수회)

작은예수수녀회 매일 철야기도 지향
 대상: 중재기도(특별기도) 필요하신 분
 때: 4월1일~30일까지 / 문의: 010-8874-7970

삼성산 피정의 집 화요성령기도회 / 문의: 02)874-6346
 때, 곳: 매주(화) 18시30분~22시,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주최: 삼성산성령수녀회·사랑의성령봉사회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가톨릭 교수회)
 자연치유력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때, 곳: 3월25일(금)~28일(월)·4월8일(금)~11일(월), 도미니코수도회 / 문의: 010-9916-5798 토마스모어 신부, 010-9363-7784 신글라라

제주 성 이시돌 자연 순례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 있는 평화로운 '섬'과 재충전의 시간
 대상: 개인, 가족, 일행, 본당 단체 구분장
 때: 3월30일~4월1일, 4월4일~6일, 4월10일~12일, 4월19일~21일, 4월24일~26일, 4월30일~5월2일
 문의(접수): 02)773-1455, 064)796-4182

가정선교회 5월 행사 부부나들이 피정
 때, 곳: 5월14일(토) 14시~15일(일) 17시, 성라자마을 아론의집 본관 / 한철호 신부, 홍성남 신부, 이성호 박사, 이요셉 소장, 이현주 회장, 김미희 강사
 회비: 1부부 20만원 / 계좌: 신한 131-020-141419 (계)천주교서울대교구(가정선교회)
 준비물: 개인입, 운동화, 수건 및 세면도구
 문의: 010-6281-8626, 02)777-1773 대표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 문의: 010-3340-0201

성경 원독	4월1일(금)~9일(토)	곳: 도미니코
말씀 피정	4월28일(목)~5월1일(일)	피정의집(주최, 회생)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 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미사,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자연순례 피정	4월18일~20일, 4월29일~5월1일
성지순례 피정	4월2일~5일, 4월9일~12일, 4월23일~26일, 5월5일~8일, 5월12일~15일

교육

미사반주법 및 묵상곡을 위한 오르간 교육
 때: 4월4일부터 (월)~(토) 10주
 주최: 아퀴나스오르간연구소 / 문의: 02)338-3793

성물조각·목세공·가구 수강생 모집(가톨릭목공예)
 카페: cafe.naver.com/cmc04 / 문의: 010-5234-5044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 수석심사위원 직강 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수원교구 사이버성경학교 수강생 모집
 대상: 성경공부를 원하는 모든 분
 성직자, 수도자, 장애인 50%할인(전화 필수)
 문의: 031)360-7635, 010-7470-7966

새천년복음화학교 146기 1단계 청년반 개강
 때: 4월26일(화) 14시·4월27일(수) 19시·4월26일(화)-청년 13기 저녁반 / 회비: 7만원
 문의: 02)753-8765, 010-8931-8765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훈련생 모집
 내용: 기계가공, CAD·CAM, 인성교육
 때: 3월~12월 / 대상: 만 15세 이상 남자
 최근 5년 평균취업률 87.5% / 문의: 02)828-3600
 혜택: 교육비·기숙사 무료, 수당 지급

2022년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신학과정 추가 모집
 대상: 가톨릭교회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학력 제한 없음) / 문의: 02)745-8339(http://ci.catholic.ac.kr)
 내용: 가톨릭신학 26과목을 통신(우편)으로 공부
 추가접수: 3월31일(목)까지 우편접수 가능

미국가톨릭사립학교 학생 모집
 문의: 02)2258-8983(oakinternational.co.kr)
 주최: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운영 미국 학교법인

9월 정규입학 모집	초5~고1 / 단기 1년 또는 장기
미국 캐나다 여름캠프모집	초4~중2 / 미국 4주·캐나다 2주

모집

명동대성당 무지카시크로스년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1986년 창단된 한국 최초의 소년합창단이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 대상: 9세~12세 가톨릭 신자 남아
 문의: 010-5514-3002 자모회장

미사

절두산순교성지 마리아연령회 미사 / 문의: 02)3142-4434
 때, 곳: 3월25일(금) 11시30분, 전철 2.6호선 합정역 7번 출구 / 내용: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한 연도 및 미사

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월례미사
 때, 곳: 3월21일(월) 14시~15시30분, 가톨릭회관 205-2 / 내용: 고해성사, 미사, 성체조배
 문의: 02)6253-3373, 010-8360-3700

천주교서울국제선교회 월례미사
 중남미 선교와 사제양성을 위한 후원미사입니다
 집전: 송영호 신부 / 문의: 02)749-4596
 때, 곳: 3월28일(월) 14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평양교구 신우회 월례미사 / 문의: 02)727-2056
 때, 곳: 3월23일(수) 11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성서가족 열린미사(역삼동성당)
 청년성서모임 40대, 50대 성서가족들이 흥인식 신부와 함께하는 찬양미사 / 문의: 010-5229-9425
 때: 매일 넷째주(일) 3월27일 15시
 곳: 역삼동성당 및 온라인 / 유튜브 '열린미사' 검색

평화묘원 한식미사(전농동성당)
 평화묘원(포천시 화현면 지현리 소재)의 2022년도 한식미사를 아래와 같이 집전하고자 하니 모두 분께서는 많은 참석 바랍니다
 때, 곳: 4월2일(토) 오전 11시, 평화묘원(내) 봉안당
 집전: 전농동성당 주임 신부 / 문의: 02)2241-7841, 2

인사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블자비의수녀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중독 중점치료(알코올·마약·도박·인터넷 게임 등),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야간진료 (화) 18시~20시30분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번 거리
 문의: 031)810-9200 / 홈페이지: www.karf.co.kr

전·진·상 여성심리상담소 / 문의: 02)726-0700
 곳: 명동 / 홈페이지: www.ijscen.or.kr

전문 심리상담	부부 및 가족상담, 개인상담-정서불안·우울·분노·의사소통의 어려움
사목상담	성격, 관계, 정서(불안·우울·단절감) 등 심리적 고통에 관한 상담 / 대상: 개인, 가족, 부부, 청소년 누구나(무료 10회기)

직원모집

서울성심간병인회 남녀 간병사 수시 모집
 곳: 서울삼성병원, 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근무 내용: 환자에게 간병 제공(24시간 병원 상주) / 1522-9415

서울대교구 특수사목사제관(성북동 등) 직원 모집
 대상: 세례받은 분
 분야: 주방근무자·세탁근무자 각 0명(계약직)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지원업무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각 1부 / 이메일 문의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통보) / 4월3일(일)까지 우편(우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 74 서울대교구 사무처) 및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 접수

수도회 상소모임	때	곳	문의
삼성산 성령 수녀회	수시	관악구 호암로 454-16(신림동)	010-3551-5877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매월 넷째주(토) 15시~(일) 13시	서울 분원(장충동)	010-8353-2323
작은예수수녀회	수시	수녀원(군자동)	010-8939-7970
천주교서울국제선교회	수시	신학원(한남동)	010-2749-4596, 02)749-4596
프란치스코 전교봉사수녀회	3월27일(일) 14시(1시간씩)	아프리카잠비아선교후원회(가톨릭회관 526호)	010-3679-7198 강피아 수녀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신간

**아남네시스,
돌아보다**
시간은 흘러도 사랑은 남는다

이기락 지음
오엘박스 | 264쪽 | 1만5천원
문의: 031)906-2647

저자가 『경향잡지』 편집인으로서 매달 썼던 권두언을 중심으로 책을 펴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자연환경마저 고통을 겪던 시기에 한국천주교회는 복음 정신에 따라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왔다. 저자는 교회의 가르침 안에서 나아가야 할 길을 호소하고 탄원한다.



신간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26
원죄**

토마스 아퀴나스 지음
한국성토마스연구소 | 248쪽 | 2만원
문의: 02)762-1194

이 책은 원죄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궁극적 목적이 하느님의 관계 회복과 그에 따른 일치임을 일깨우려 한다. 신학대전 26권은 본래 은총으로 지녔던 의로움의 상실로 인해 생긴 인간 본성의 부패와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인간 본성의 선함을 동시에 바라보게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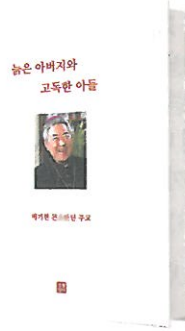


신간

**그들은
침묵으로 말한다**

오귀스틴 길르랑 지음
생활성서사 | 248쪽 | 1만5천원
문의: 02)945-5987

‘침묵과 고독’은 봉쇄 수도회인 카르투스회 수도승의 삶의 근본이다. 성덕으로 나아가는 천국의 사다리에서 영적인 삶의 경지에 이른 저자의 ‘침묵과 고독의 샘’에서 솟아 나온 한 편 한 편이, 오늘 우리의 마음 밑에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씨앗이 되어 하나하나 뿌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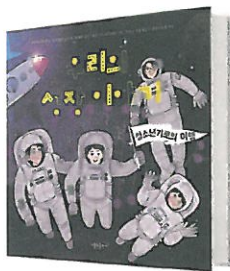


신간

**늙은 아버지와
고독한 아들**

배기현 지음
생활성서사 | 192쪽 | 1만3천원
문의: 02)945-5987

마산교구장 배기현 주교만의 기상천외한 자전적 에세이와 가르침 모음집이다. 배기현 주교였기에 가능했던 여러 재미난 일화들은 읽는 이에게 웃음을 선사하며, 시골 본당의 따스한 사목 이야기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곧 영성(靈性 spirituality)’임을 보여 준다.



신간

우리의 성장이야기
(청소년기로의 여행)

비르지니아 콘티, 도나텔라 산나 지음
가톨릭출판사 | 80쪽 | 1만2천원
문의: 02)727-2353

인간이 성장하면서 겪게 되는 성과 관련된 생물학적 변화들과 신비한 현상들을 과학적으로 설명한다. 청소년과 부모들이 알아야 할 내용으로 구성된 성교육 교재이다. 몸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과 생명 중심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나와 다른 타인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협력하는 태도를 형성하도록 이끈다.



신간

**청년들을 위한
생명 지킴 안내서**

주교회의 가정과 생명 위원회 지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152쪽 | 6천원
문의: 02)460-7582

젊은이들에게 생명과 성을 둘러싼 교회의 가르침을 알기 쉽게 제시하고자, 생명 윤리와 성교육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이 책을 펴냈다. 탄생과 죽음이라는 인간 생명의 신비를 비롯하여 인격적 친교, 성과 사랑, 혼인과 출산 등, 현실에서 부딪히는 생명과 성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실천적 가르침을 제시한다.

제2221(성 바오로 사도 회심 축일)



http://www.yeonhui.or.kr

03727 시흥시 시대문구 연희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보좌신부 : 이철규(아우구스티노)

안령회장 : 차명국(바오로) 010-5512-4450

주일 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요일 :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주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디),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유 아 세 례	홀수 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혼 인 면 담	매 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평일 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요일 : 06시 화요일 :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 06시, 10시 토요일 : 06시 	성모신심미사	매 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 사순시기 맞이하여 이웃에게 예수님 사랑 전하기

초등부 주일학교 친구들이 카드를 보냅니다.

대상 : * 코로나로 한동안 성당을 방문하지

못하거나 홀로 계신 어르신

* 기도가 필요하신 어르신

신청기간 : 3월 12일~4월 10일(사순 5주간)

접수방법 : 사무실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

문의 : 초등부교사 (010-9035-0640)

◎ 본당 시노드 소모임

(구역·반, 레지오, 단체, 개인)

시노드를 위한 본당 소그룹별 모임을 통해

교우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출일자 : 3월 20(주일) **오늘**까지. 본당 사무실

참고할 사이트 주소 : www.synod.or.kr

◎ 성모 신심 미사 : 4월 2일(토) 오전 10시

◎ 부활 집중 판공성사

일시 : 4월 7일(목) 저녁 7시 30분

장소 : 성전 및 임시 고해실

* 성사표는 각 구역반장님을 통해 배부합니다.

기타구역은 사무실에서 받아 가지기 바랍니다.

* 사순시기 동안의 모든 고해성사는

부활판공성사로 인정됩니다.

◎ 십자가의 길

일시 : ■ 3월 4일(금)~4월 8일(금)

매 주 금요일 오전 10시 미사 후

■ 4월 15일(금) 오후 3시

◎ 청년 십자가의 길

일시 : 3월 6일(주일)~3월 27일(주일)

매 주일 오후 6시 청년미사 후

◎ 여성울뜨레아

일시 : 3월 22일(화) 오전 10시 미사 후 소성전

◎ 아치에스 행사

일시 : 3월 27일(주일) 오후 1시 대성전

◎ 화요일저녁미사 장소 변경 안내

3월 29일(화)부터 저녁 7시미사는

지하소성전에서 드립니다.

◎ 군입대 자녀 부활선물은 4월 3일(주일)까지

사무실에 신청 바랍니다.

◎ 2022년도 어린이 첫영성체 교리반

대상 : 초등학교 3학년~6학년 학생

교리시작 : 3월 12일(토) 어린이 미사 후 / 304호

접수방법 : 사무실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

문의 : 대표봉사자 (010-2561-4773)

◎ 오늘은 성당유지보수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교무금 책정 현황 (2022. 3. 13)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율)	납부세대 (납부율)	2021년 책정율	2021년 납부율
2,078	665 (32.0%)	594 (28.6%)	43.8%	42.5%

교무금계좌번호	우리은행	137-04-110875
---------	------	---------------

※ 교무금 자동이체 신청해서 납부 바랍니다.

※ 교무금은 반드시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당유지보수기금 (2022년)

황정숙 일십만원

누 계 21,673,400원

◎ 감사헌금 (3월 7일~13일)

진영문 일십만원 진현주 오만원

진현수 오만원 이명숙 일십만원

김중훈 일십만원 익 명 일십만원

홍동수 일십만원 박정수 이십만원

이혜경 일십만원 박창엽 일십만원

신윤영 일십만원 성지호 오만원

◎ 우리들의 정성(사순 제2주일)

교무금 8,792,000원

주일헌금 3,924,050원

성당유지보수를 위한 2차헌금 1,691,000원